



교 장 황 인 용

운명을 바꾸는 힘 - 좋은 습관!

새롭게 시작되는 2학기를 맞이한 해성인 여러분!

온갖 정성을 다해 뒷바라지 해 주신 선생님들과 부모님들, 그리고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여러분들께 먼저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50여년 반세기의 역사를 거치면서 우리 학교는 더욱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학교 건물과 특별실이 리모델링되어 깨끗하고 멋지게 변했으며, 어느 해보다도 열심히 공부하는 여러분의 성적으로 3월부터 줄곧 상위를 유지하면서 지역 사회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수한 실력과 더불어 친구들과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실천 운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멋쟁이들이 바로 우리 학교 학생입니다.

교 건물과 특별실이 리모델링되어 깨끗하고 멋지게 변했으며, 어느 해보다도 열심히 공부하는 여러분의 성적으로 3월부터 줄곧 상위를 유지하면서 지역 사회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수한 실력과 더불어 친구들과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실천 운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멋쟁이들이 바로 우리 학교 학생입니다.

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나는 새 학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좋은 습관을 기르자' 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거의 같은 시간에 같은 방식으로 등교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일상 생활 중에서 규칙적으로 되풀이 되는 행동, 그것을 오랫동안 반복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을 '습관' 이라고 합니다. 먹고 자는 것에서부터 생각하고 반응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이든 습관이 될 수 있으며, 선천적으로 타고 나기보다는 후천적인 방식으로 무의식적으로 형성되어 굳어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버릇, 습관' 이란 것은 한번 몸에 배면 고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은 인격을 만들고, 인격은 운명을 바꾼다.' 라는 말은 '습관' 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좋은 책을 많이 읽는 것, 어른들께 예의바르게 인사 하는 것, 수

제 5호 '바다의 별' 을 발행하면서 여러분들께 '습관'

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 잘 듣는 것, 공부할 때 집중력을 가지고 스스로 공부하는 것, 일찍 일어나는 것 등은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습관입니다. 그런가하면 공부하는 척하는 행위(실제로는 자신과 부모님, 선생님을 속이는 행위), 매일 아침 늦게 일어나 허둥대며 지각하는 것,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 등은 우리가 버려야 할 나쁜 습관 중의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2학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 자신의 습관 중 어떤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지 못한 습관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는 건 어떨까요? 좋은 습관 중에서도 항상 나보다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담긴 습관을 가지도록 합시다. 또한 자신의 나쁜 습관을 한 가지씩 찾아내어 좋은 습관으로 바꾸고, 더 나아가 운명을 개척하는 노력을 해 봅시다. 이처럼 좋은 습관을 기르기 위해 생활 속에서 부단히 노력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21C의 훌륭한 주역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주보축일·장기근속 교직원 표창



주보축일에 장기 근속 교사 표창식 열려 - 선생님 사랑합니다. -

지난 5월 30일 (토) 오전 10시 강당에서 우리 학교의 주보 성인이신 성모 마리아를 기념하는 주보 축일 행사가 열렸다. 이사장이신 이병호 빈첸시오 주교님이 집전하신 미사에 1,2,3학년 신자 학생 및 2학년 학생 전체가 참여하여 엄숙하고 뜻 깊은 시간을 함께 했다. 특히 행사 마무리에는 오랜 시간을 우리 학교에서 근무하신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연공자 표창식이 거행되었다. 행사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은 오랜 기간 우리 학교를 위해서 헌신하신 선생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갈채를 아끼지 않았다.

30년 근속 교사	20년 근속 교사	10년 근속 교사
김지영	김학병, 김상호	안미연, 최 은 조수정, 강은희

2학년 김남규 기자

세상에 우리를 소리치다 한마음으로 서로 하나 된 축제 다양한 볼거리와 공연들

지난 7월 15일, 제 15회 '빛울림제' 가 열렸다. 축제의 주제는 바로 '해성인이여! 세상에 너희를 소리치라!' 이다.

이번 해는 다른 해보다 학생들의 참여도와 열의가 대단하였다. 축제의 개최식은 그 어느 때보다도 특별했다. 선생님들의 과거 사진과 인기 그룹 2PM의 축하 인사가 담긴 동영상은 학생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서 상영되었다.

1부(오전)에서는 각 부서마다 참신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고 학생들의 봉사로 먹을거리 장터가 열렸다. 공예, 영화 관람, 팔링수, 컵 케익 판매의 수익금은 모두 불우 이웃 돕기 성금으로 사용되었다.

2부(오후) 공연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숨겨 두었던 자신들의 끼를 발산하였다. 초빙한 레크레이션 강사의 사회로 인해 분위기는 한층 활기를 띠었다. 기악 공연 후 본격적으로 학생들의 장기자랑이 시작되자 학생들의 함성도 커져갔다. 학생들의 댄스, 노래, 수화 공연, 비트 박스, 우수 공연 등이 선보여졌다. 학생들은 모두 출연자들과



한마음이 되어 다 같이 웃으며 즐겼다. 마지막으로 선생님들의 합창을 통해 학생들에 대한 선생님들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앵콜로 '장기하와 얼굴들' 패러디 공연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비보이 팀 Real Flow의 멋진 팝핀 댄스 공연은 축제 끝의 아쉬움을 달래주었다.

이번 제 15회 '빛울림제' 를 통해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서로의 색다른 모습을 발견하고 또한 내 안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이 힘을 바탕으로 우리 해성 가족 모두는 어느 때보다도 2009년 2학기를 보람차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3학년 김유라 기자



<2학기 학사 일정 안내>

- ▶ 개학 (8. 25)
- ▶ 영어듣기평가 (9.16 ~ 18)
- ▶ 1, 2, 3학년 성취도 평가 (9. 24)
- ▶ 중간고사 (10. 7 ~ 10. 12)
- ▶ 3학년 국가수준 성취도 평가 (10. 13 ~ 14)
- ▶ 체력검사 (10. 14)
- ▶ 1, 2학년 체육대회 (10. 20)
- ▶ 하루 나들이 (10. 21)
- ▶ 교류학습 (10. 30 ~ 31)
- ▶ 3학년 기말고사 (11. 17 ~ 19)
- ▶ 1, 2학년 기말고사 (12. 4 ~ 8)
- ▶ 세례식 (12. 11)
- ▶ 고입연합고사 (12. 16)
- ▶ 1, 2학년 전국단위성취도평가 (12. 23)
- ▶ 종업식 (12. 29)



소중한 한 표들이 모여

지난 7월 10일(금)에 우리 학교의 대표를 뽑는 회장단 선거가 있었다. 김효린(2-9) 학생은 396표(지지율 42.6%)를 받아 총 학생회장으로, 서완석(2-6)학생은 368표(지지율 39.6%)를 학생회 부회장으로 당선되었다. 또한 1학년 부회장으로 임재원(1-4)학생이 무투표로 당선되었다. 우리들의 소중한 한 표로 뽑힌 학생회장단에게 아낌 없는 지지를 보내며 그들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2학년 이원모 기자

등굣길의 해성 보디가드

스쿨버스 기사님들 -『학교 생활 안전 지킴이』로 위촉.

지난 4월 15일, 학생들의 등·하교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학교 셔틀버스 기사님 8분을 '학교 생활 안전 지킴이'로 위촉하는 행사가 열렸다.

이 제도는 기사님들께서 '학교 생활 안전 지킴이'로서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안전 운행을 하는 것은 물론 버스 안팎에서 생길 수 있는 학생들의 사소한 다툼이 큰 사고로 번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여러 유형의 학교 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학생들도 기사님들을 단순하게 셔틀버스를 운전하는 분으로서만이 아니라, 등·하교시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자신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가족과 같은 고마운 분들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선생님들 역시 등·하교 시간에 학생들의 생활 태도와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시는 기사님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학생들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교내·외 학생 생활 지도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이런 여러 기대 효과 때문에 도내 유력 일간지 3곳에 이 제도의 취지와 내용이 실리기도 하였다.

2학년 김원열 기자



※ 기사님들과 학생들의 마음의 소통을 위해 간단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기사님들의 마음을 살짝쿵 들여다 보아요~ (기사님 8분 대상으로 설문)

1. 일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실 때는 언제인가요?

- ① 학교가 아닌 곳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반갑게 인사 할 때
- ② 아저씨 수고하신다고 학생들이 인사 해 줄 때
- ③ 학생들이 등·하교 시 편안함과 편리함을 느낄 때

2. 학생들이 가장 예뻐 보일 때는 언제인가요?

- ① 공손히 인사를 잘 할 때
- ② 예의 바르고 기본 질서를 잘 지키는 학생을 볼 때
- ③ 자신의 쓰레기를 스스로 잘 처리할 때

★ 학생들의 마음을 살짝쿵 들여다 보아요~ (1학년 학생 120명 대상으로 설문)

1. 기사님이 최고로 멋져 보일 때는 언제인가요?

- ① 승차권 가져오지 못한 것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실 때
- ② 질문(인사)에 자상하게 대답해 주실 때
- ③ 늦어도 좀 기다려 주실 때

2. 우리가 스쿨버스를 이용할 때 꼭 지켜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① 스쿨버스 안의 기물을 파손시키지 않기
- ② 스쿨버스 안에서 음식물을 먹지 않기
- ③ 스쿨버스에서 내린 후 무단 횡단 하지 않기

정리 : 학생기자단-은하수

우리들의 생각

3초의 작은 센스! 우리의 마음 속에!

(어디선가 뭉개져 있는 느낌) “어~ 이게 뭐야!”
(머리에 손을 올리며) “에잇! 침이잖아?”

위와 같은 상황! 여러분은 한 번쯤 이런 일을 겪고 하루 내내 기분이 좋지 않았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이렇듯 쉬는 시간 또는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창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침을 뱉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친구들끼리 재미삼아 서로서로 침 뱉는 연습을 하는가 하면, 고의적으로 건물 아래 지나가는 사람을 표적으로 침을 뱉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침을 뱉는 일이 보기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고, 내가 무심코 창 밖으로 뱉은 침이 다른 사람의 머리에 맞을 수도 있는 것을 아는데, 굳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학생들에게 질문해 본 결과 ‘그냥, 재미로’라고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내가 맞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내 기분이 나쁜 것도 아닌데 하는 이 기적의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깔려 있었다. 심지어 침을 맞고 불쾌해지는 사람의 표정을 보면 즐겁기까지 하다는 대답도 있어 우리들이 생각 없이 행동할뿐더러 다른 사람들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가지 이런 행동에서 진지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다른 학생의 분별없는 의도적인 행동으로 끈적 끈적한 침을 맞아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그 사실을 잊고 똑같이 나를 맞았던 학생의 입장이 되어 침을 뱉고 있다는 점이다. ‘너도 한 번 당해 봐라!’라는 심정으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처럼 이런 행동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 학교에서 창 밖으로 침 뱉는 일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말처럼 이 나쁜 습관을 하루 빨리 고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내가 받아서 기분 좋은 일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럴 것이다. 하물며 기분 나쁜 일은 어떠하겠는가? 침을 뱉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꼭 침을 뱉는 데 1초! 침을 다시 머금은 데 1초! 미소 짓는데 1초! 지금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3초의 작은 센스’가 필요할 때이다. 이 작은 센스가 우리 모두에게 자리 잡은 후에 진정으로 아름다운 해성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학년 이아주 기자



사랑하는 어머니, 성모님!

지난 5월 22일 오후 성모의 날 행사가 있었다. 이 행사는 강당에서 1,2,3학년 학생 중 신자 학생들이 모여 미사를 드리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미사 중간에 학생들은 각자 성모님께 마음을 담아 꽃을 봉헌하고, 정성을 다해 묵주 기도를 바쳤다. 그리고 신자들을 대표하여 강유진(1-3) 학생이 사랑의 모후이신 성모님께 쓴 편지를 낭송하였다. 그 동안 학생들은 성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용히 묵상을 하였다.

2학년 김남규, 양예찬 기자

나눔을 통해 훈훈해지는 세상

지난 4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학생부 주관으로 월드비전의 ‘사랑의 빵’이라는 동전 나눔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 캠페인을 통해서 모은 성금(총 904,790원)은 베트남 루안탄 초등학교의 학습 및 시설 기자재 지원에 쓰인다고 한다. 이를 통해 베트남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보건 위생을 강화하여 아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작은 성의가 모여 어려운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든 소중한 체험이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자선 행사에 좀더 많은 해성인이 참여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작은 아쉬움이 남았다.

3학년 정완오 기자



해성의 아침을 여는 사람들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교문 입구에서 김동석, 김상현 선생님, 류인명 배움터 지킴이 선생님, 주마다 돌아가면서 봉사하시는 여러 선생님들, 교통 봉사하는 학생들을 볼 수 있다. 이 분들은 맑은 날은 물론 비가 세차게 내리는 날에도 오전 07:35~08:10에 등교하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애써 주고 계신다. 스쿨버스 기사님들께서도 아침 이른 시간에 잠이 덜 깬 우리들을 태워 안전하고 편안하게 학교에 데려다 주신다. 또한 교문을 들어서면 오른 쪽에 학생들의 바른 생활 실천을 지도하시는 강다석(학생부장)선생님을 만날 수 있다. 매일 아침 활기찬 생활을 위한 첫걸음! 등굣길을 도와주시는 여러 선생님들과 스쿨버스 기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해본다.

2학년 이아주, 임은지 기자



비가 많이 내리는 날에도 변함없이 등굣길 지도를 하시는 모습(2009.07.15)



축구부의 아름다운 봉사 정신

구부 학생들이 다 같이 아침 청소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진정 마음에서 우러난 모습으로 봉사를 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아침마다 숨은 선행을 펼치는 축구부 학생들에게 고마움의 박수를 보내 본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게 습관처럼 굳어진 학생이 있다면, 자신이 버린 쓰레기를 누군가가 수고스럽게 줍고 있다는 생각을 하며 반성의 시간을 가져 보는 것은 어떨까?

2학년 김원열 기자

매일 아침마다 축구부 40명 전원은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학교 곳곳의 쓰레기를 주우면서 숙소로 돌아온다.

오인익(축구부장) 선생님께서도 운동장 주위에 쓰레기는 많고 선뜻 치울 사람은 없기에 축구부원들이 조금의 시간을 내어 봉사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아침 청소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쓰레기가 없는 깨끗한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을 받고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것은 축구부원들의 숨은 봉사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축

기획취재

재테크? 시간 테크!!

'나'만의 효율적인 자투리 시간 활용법을 찾아라!

1학기가 다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다. 지난 6개월을 우리는 알차게 보냈는가? 무의미하게 그저 놀면서 보내진 않았는가? 바로 지금 위 질문들의 답을 내고 지난 자신의 모습을 반성할 때이다. 그래서 지난 1학기 말, 지금까지 학생들의 생활 모습을 돌이켜 보고자 학생 기자단 '은하수'에서 '자투리 시간 활용 실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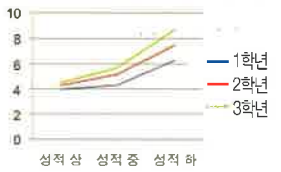
1. 상위 10%의 자투리 시간 활용 2. 중하위권의 자투리 시간 활용



3. 상위 10%의 공부 비율



4. 자투리 시간의 잠자는 비율



<각 학년 150명씩 총 450명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위의 그래프를 보면 상위 10%학생들과 중.하위권 학생들 사이의 차이가 눈에 띄게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자투리 시간 활용 내용 중 공부의 비율에서 큰 차이가 난다. '공부' 항목에 학교와 학원 숙제가 모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권 학생들에 비해 공부 시간 비율이 20%나 낮게 나왔다. 또한 잠자는 비율에선 상위권 학생들보다 2배나 높게 나왔다. 이외에도 상위권 학생들이 자신의 현재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중.하위권 학생들은 별로 그런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여러 면의 차이가 성적을 좌우하는 중요한 원인이 아닐까?

그렇다면 자투리 시간 활용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성적까지도 좌우할까? 시간 관리 10계명 - <이민규의 [1%만 바뀌도 인생이 달라진다] 중에 수록> - 을 보게 되면 4번째 항에 '자투리 시간을 생산적으로 활용한다' 라는 구절이 있다. 프린스턴대의 입학국장은 언론과의 인터뷰

부에서 학생들을 면접할 때면 각자의 '타임 매니지먼트'에 대해 물어본다고 밝히며, '시간 관리'는 학생들에게 있어 '가장 효과적인 성적 향상 비결'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수많은 지식인들과 사회의 엘리트층은 바로 시간 관리, 그 중에서도 자투리 시간의 생산적 활용에 의미를 두고 있다.

이번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은 주로 자투리 시간 활용의 효과로 3가지를 꼽는다.

- 첫째, 집에서 할 일이 줄어 자신만의 공부를 할 여유가 생긴다.
- 둘째, 쉬는 시간의 예·복습은 해당 과목 이해와 집중도를 높여 준다.
- 셋째, 배운 것을 더 오래, 선명하게 기억할 수 있다.

이처럼 자투리 시간 활용은 성적 향상과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자투리 시간을 막상 활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 의욕은 있으나 그 방법을 모를 때가 많다. 그럴 때 몇 가지 TIP들만 기억해 보자.

1. 시간 관리를 시작하기 전 현재까지 자신이 어떻게 시간을 활용했는지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시간 활용 내역'을 적어 보자. 일주일 동안 작은 공책을 항상 소지하여 매 15분마다 한 번씩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적어 보자. 나중에 기록하겠다고 미루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일주일 후 이 기록을 토대로 다음 사항을 검토해 보자.

- ▶ 내가 해야 할 과제를 다 성취하였는가?
- ▶ 시간에 쫓기며 과제를 성취하였는가?
- ▶ 모든 과제를 마감 시간에 늦지 않게 성취하였는가?
- ▶ 목표를 달성하는데 장애물이 되었던 나의 습관은 무엇이 있는가?
- ▶ 나는 하루 중 어느 시간에 가장 생산적인가?
- ▶ 나는 하루 중 어느 시간에 가장 비생산적인가?

2. 자신의 모습을 모두 검토한 후 시간 활용을 시작해 보자.

3. 하루 계획이 다 마무리 된 후에는 성취도를 체크하고 부족한 부분을 다시 검토해 보자.

지금까지 자투리 시간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간 관리 활용 방법'에는 어떤 사항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청소년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미래의 내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시간 관리 요령을 익히고 제대로 시간을 활용해 보자! 이렇게 한다면 학기가 끝날 때마다, 학년이 바뀔 때마다 후회만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성취감에 뿌듯해 하는 자랑스러운 '나'의 모습으로 변화해 있을 것이다.

정리 : 3학년 김유라, 정희수 기자

우리 모두 챔피언!

지 난 4월 15일에서 16일까지 이틀에 걸쳐 체육 대회가 열렸다. 학생들은 축구, 농구, 단체 줄넘기, 줄다리기, 400m 계주



등의 경기에 참여하고 열띤 응원을 펼치며, 이들 동안의 대장정을 즐겁고 활기차게 마무리 지었다. 경기에 참여한 학생들은 기량에 관계없이 협동 정신과 페어플레이 정신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했으며, 응원하는 친구들은 한 목소리로 목이 터져라 응원하며 공동체 의식을 깨달을 수 있었다. 이번 춘계 체육 대회는 학생과 선생님 모두가 하나 되어 해성인의 역량을 뽐냈던 계기가 된 듯 깊은 행사였다.

★ 학년별 종합 우승 : 1-10반, 2-3반, 3-6반
3학년 정완오 기자

세균 덩어리, 바로 손!



우리의 손에 한쪽에만 무려 6만 마리의 세균이 살고 있다. 특히 감기 바이러스는 손으로 감염되는 경우가 많은데, 손을 씻는 것만으로도 세균의 80%를 제거 할 수 있다고 한다. 손 씻기는 요즘 세 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 플루의 예방법 중 하나이기도 하다. 외출 후에는 물론 생각 날 때마다 손을 씻어야 한다. 위와 같이 손을 씻는다면 수 많은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 건강한 해성인이 되자!

3학년 한미래 기자

교장선생님- Interview

항상 밝고 포근한 미소로 학생들을 맞아주시고, 학교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황인용 교장선생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자, 그럼 새로 오신 황인용 교장 선생님과의 인터뷰를 시작해 볼까요?

1. 우리 학교에 교사와 교감 선생님으로서 계시다가 지금은 교장선생님이 되어 오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제가 교감으로 근무할 때도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과 다시 함께 생활하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마치 시집 간 새색시가 친정에 온 것처럼 내 고향에 돌아왔다 생각하니 포근한 마음이 먼저 듭니다.

2. 선생님은 중학교 때 어떤 학생이었으며, 그 때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일단 교우 관계 원만하고 장난끼 많은 학생이었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잘 따르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욕심 많은 학생이기도 했구요. 음, 큰 고민은 없었구요. 걸어 다녔는데 통학 거리(걸어서 1시간)가 멀어서 등하교가 힘들었던 기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3. 우리 학교만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공기 맑고 소음 공해 없는 교육 환경이 우리 학교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고, 어려운 이웃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워 내는 선생님들과 학생들 또한 우리 학교의 보배라 할 수 있겠죠.



4. 교장선생님께서 바라는 해성인의 모습을 말씀해 주십시오.

- 기본이 튼튼한 생활 습관이 몸에 배어있고, 도덕적으로 건강하고 양심에 따르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5. 선생님께서 감명 깊게 읽은 책 중 우리 중학생들이 읽으면 좋은 책을 추천해 주십시오.

- '오체불만족(저자 : 오토다케 히로타다)' 이란 책입니다.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지만 불굴의 의지와 용기로 장애를 극복하는 저자를 보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6. 마지막으로 공부에 지친 학생들에게 힘이 되는 희망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지금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끈기 있게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의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 귀한 시간을 내 주신 교장선생님! 고맙습니다! *

정리 : 2학년 이아주, 김남규 기자

깨끗한 교실에서 하는 공부! 학습 능력까지 쑥쑥!

지난 3월 25~27일에 환경 정리 심사가 있었다. 심사 결과로는 2학년 6반이 학교 전체 1등을 했고, 학년별로는 1-4반, 2-3반, 3-3반이 1등을 했다. 반 학생들이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계 시판 구성은 물론 교실 구성구석 눈에 잘 띄지 않는 곳까지 꼼꼼하게 청소하려는 마음의 각오가 수상 비결이 아닐까 싶다.

학년 종합 1등 (2학년 6반)



이렇게 환경 정리와 청소를 깔끔하게 해 놓은 상태에서 공부 한다면 우리들의 기분도 상쾌하고 학습 의욕도 한층 더 생기지 않을까? 앞으로도 환경 정리 심사를 준비하던 그 마음을 잊지 말고 2009년 을 해가 다 갈 때까지 교내·외 청결에 힘쓰는 해성인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3학년 1등 (3학년 3반)



2학년 임은지 기자

교류학습! 궁금하다~ 궁금해!

지난 6월 19일(금) 울산현대중학교 학생 40명이 우리 학교를 방문하였다. 첫째 날에는 전주중이박물관을 방문하여 우리 고장의 대표 상품인 한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둘째 날은 군산의 새만금 전시관에 가서 관람을 하고, 새만금 방조제를 둘러보았다. 올해로 9년을 맞이한 교류 학습은 서로 잘 알지 못했던 영남과 호남 지방의 문화를 알아가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학습 마당으로 자리매김했다. 2학기에는 우리 학교 학생 40명이 울산현대중학교로 방문(10월 30~31일)할 계획이다. 우리 학교와 울산현대중학교의 교류학습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가기를 바라며 교류학습에 참가한 두 친구의 편지를 소개한다.

2학년 이원모 기자



보고 싶은 연희에게

전주해성중학교 (2-7) 고은설

연희야, 안녕? 그 동안 잘 지내고 있었니? 우리가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아주 오래 전에 우리가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짧은 만남이었지만 내 마음에 많은 추억이 남아있어. "

너와 처음 만났을 때, 전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울산에서 온 친구라서 그랬는지, 또 여기와는 다른 맛투가 낯설게 느껴져서 그랬는지 몰라도, 왠지 알지 못할 마음의 거리가 있었어. 하지만 너와 지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

런 느낌이 없어지는 게 정말 신기했어. 같이 영화도 보고, 운동도 하다 보니까 어느새 편해지고 이전처럼 농담까지 던질 정도가 되었으니까 말이야.

연희야! 네가 다정다감한 애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편해지진 못했을 거야. 넌 본받을 점이 참 많은 친구야. 어른들한테 무척 예의 바르고, 내 동생들한테도 잘 놀아 주고, 운동도 잘 하고!

교류 학습을 통해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아. '연희'라는 좋은 친구를 사귄 수 있었고, 우리 고장의 자랑인 전주 종이 박물관과 새만금에도 가 보았잖아? 만약 이런 기회가 없었다면 너를 만나지도 못하고 내 마음 속 소중한

친구인 '너'에 대한 존재도 모르는 채 살아갔겠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네가 그리워지는 지는 건? 가끔 집에 혼자 있을때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들을 떠올려 보면 좋았는데~.

연희야! 비록 우리가 사는 곳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우정이 오래도록 이어졌으면 좋겠어~. 2학기 때는 내가 울산으로 가지? 그 동안 연락도 많이 하고 이메일도 자주 주고 받으면서 좋은 관계 유지하자.

그럼 더운 여름 잘 보내고, 가을에 만나~

2009년 7월

전주에서 너의 친구 은설이가

멀고도 가까운 내 친구 은설이에게

울산현대중학교 (2-7) 강연희

은설아, 방학은 잘 지내고 있니? 편지 잘 받았단다. 요즘은 더위에 시원하게 내리는 소나기처럼 참 반갑구나. 내가 너를 만났을 때처럼 말이야.

나도 전주에 가기 전에 은설이 너처럼 많은 감정들이 교차했었어. 흔치 않은 교류 학습에 기분이 들떠 있기도 했고, '친구와 내가 말이 잘 통할까?' 하는 걱정도 했지. 그런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너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못했던 것 같아. 하지만 네 말처럼 잘

이 배드민턴도 치고, 영화도 보고,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우리가 처음 만난 친구 사이라고 믿지 못할 만큼 친해지게 된 것 같아.

항상 밝은 미소로 상대방을 먼저 배려해주던 은설아! 영·호남간의 소통이 적은 우리나라에서 너와 내가 만나게 된 건 정말 인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너와 만나기 전까진 그저 전주하면 호남 지방의 어느 먼 도시, 또 비빔밥 정도 밖에 떠올리지 못했는데, 이제는 전주중이박물관, 다양한 모습으로 사진도 찍었던 새만금 간척지, 새만금 전망대를 바라보던 추억들이 내 마음 속에 남겨져 있단다. 옛날에 '엘버트 후버드'라는 사람이 '추억을 잊을 수 있는 능력은 위대성의 진짜 상징이다'라는 말을 남겼어. 그만큼 좋은 추

억은 잊기 어렵다는 말이겠지?

은설아. 이제 우리가 가을에 울산에서 보게 될 때, 네가 나에게 만들어 준 예쁜 추억을 내가 만들어 줄 수 있을지 걱정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다시 우리가 만나게 될 생각을 하니까 설레는구나. 보고 싶은 은설아! 네 말처럼 나도 우리가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 사이가 됐으면 좋겠어.

다시 볼 때까지 몸 건강하고, 가을에 만나자.

2009년 8월

울산에서 너의 친구 연희가

새단장한 해성의 모습 소개

○ 외벽 공사 마무리- 1학년 교실 뒤편

-> 1차 공사 때와 같이 건물 단열 효과를 위해 약 7000만원의 예산으로 진행됨

○ 50인치 PDP 벽걸이 TV 전 교실(특별실) 설치

-> ICT 교육 실현, 좀 더 좋은 화질의 TV 시청 가능

○ 각 교실 연두색 블라인드 설치



○ 음수기 3대 설치

-> 컵 없이 먹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수로로 직수되어 무한정 물을 공급할 수 있음
(급수 시설 총 8대 - 정수기 5대 포함)



○ 운동장에 학생 쉼터 조성

-> 운동을 한 다음 햇빛을 피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



○ 각 교실, 복도 페인트칠

새롭게 단장한 학교 시설들을 깨끗이 사용하고 그 안에서 더욱 열심히 공부하는 해성인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정리 : 2학년 이아주, 김남규 기자

나도 혹시 변성기?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시기에, 목소리의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다시 정상적인 목소리로 자리 잡는 시점까지를 '변성기'라고 한다. 이 시기에는 큰 소리를 내거나, 노래 부르는 것을 되도록 삼가해야 한다. 왜냐하면 변성기에 목을 많이 쓰면 성대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 변성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1. 노래를 부를 때 고음 처리가 잘 안 된다.
2. 말하는 도중, 갑자기 쉼 목소리가 나온다.
3. 목소리가 끊어진 느낌이 든다.(남자)
4. 목소리가 가늘어진 느낌이 난다.(여자)

정리 : 2학년 이원모 기자

감성 UP! 지식 UP!

우리들은 여가 시간에 영화를 많이 본다. 그렇다면 즐겨보는 영화 중에서 10대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화는 무엇이 있을까?

<학업이나 기본 상식 등에 도움을 주는 영화>



1. 월스트리트 →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알려주고 자본주의의 비정함과 더불어 경제적 지식에 대한 폭을 넓혀 준다.

2. 서편제 →

음악 시간에

이론으로만

접했던 판소

리를 감상할 수 있다 또한 판소리에 깃든 한(恨) - 한국적 정서를 느낄 수 있다.



<정서적으로 도움을 주는 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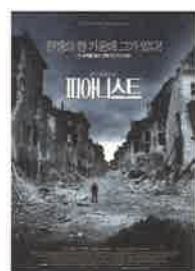


1. 인생은 아름다워 →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이들의 순수한 동심을 지켜주고 싶은 한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관객의 심금을 울리는 아버지의 마지막 유머 한 마디!



2. 피아니스트 → 전쟁의 야만 속에 망가질 대로 망가지는 인간의 존엄성! 그 폐허 속에서 죽지 않고 꽃을 피우는 송고한 예술혼!

정리 : 2학년 양예찬 기자



3학년 한미래 기자

